

# 여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성과無



4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5일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8일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 국회의장 선출·상임위 배분 등 진전 없어 오는 8일 실무협상 재개...“조금씩 구체화”

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서로가 조율한 것을 보고해서 주말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며 “이직 협상 내용을 말하긴 그런 단계다. 주말까지 최대한 힘을 모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일요일 만나기로 했다”면서 “장소는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수석들은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진 원내수석은 한국당이 전반기 상임위를 지키겠다는 입장이 불변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도 “협상 중이고 협상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원구성 협

상이 장기화되면서 의원에 한계점에 와 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진 원내수석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 상황을 보고하느라 5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 그는 “의원들이 한계에 차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궁금해 해서 (늦었다)”라며 “빨리 해야 할 텐데”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음주 원구성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다음주 가능해야 한다”며 “저도 지쳐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수석도 “우리도 마찬가지로”며 “의원들이 일정 잡기도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 현안을 문제제기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게 있는데 원구성이 안돼서 마땅하지 않다. 각 당도 공히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3년 간 240억원 지급된 ‘국회 특활비’ 최다 수령인이 농협?...깜깜이 씬짓돈

### 참여연대, 2011~2013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3년 동안 약 240억원에 달하지만 수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

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달마다 600만원씩을 탔다.

상임위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독 지급이 후했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 주는 600만원 이외에도 1000만원을 더 받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사위에만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쓰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 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

### 298명이 특활비 수령... 제2의 월급 처럼 지급

###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려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이는 298명에 달한다. 이 중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이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분석됐다.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돼 누구에게 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3년간 60억여원에 달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일명 ‘국회의원 씬짓돈’으로 불린다.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활동비를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상임위원

반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2300만원)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2억8800만원)를 받았다.

순방을 갈 때마다 5만~6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중복지급의 문제도 꼬집었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계별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가지다.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하느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만드는 예산 낭비 사례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4월까지의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 안철수 “전대출마설, 소설 쓴 원작자에 문학상 드려야”

### 8월 당대표 도전설 공식 부인... “출마 고려한 적 없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구청장, 시의원 등 출마자 오찬간담회에 참석, 인사말 나누고 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자신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원작자

안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6·13 지방선거 낙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재차 묻는 질문에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내에서 자신의 당대표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나”라고 “정치적 의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거취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안 전 후보는 당내에서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전당대회 연기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전원책, 한국당 비대위원장설 “제외도 못 받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5일 자신이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이야기와 관련해 “제외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털웃음을 보이며 일축했다.

그는 현 한국당 상황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라며 “비대위보다 필요한 것은 내부에서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둔 치열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소속 의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야 한다”며 “당 의원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안상수 혁신 비대위원회 준비위원장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설이 있다는 사회적 질문에 “전 변호사도 리스트에는 사실 있다”면서도 “내정은 아무도 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10일께 위원장 후보를 5~6명으로 압축하고 17일 또는 18일께 전국 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